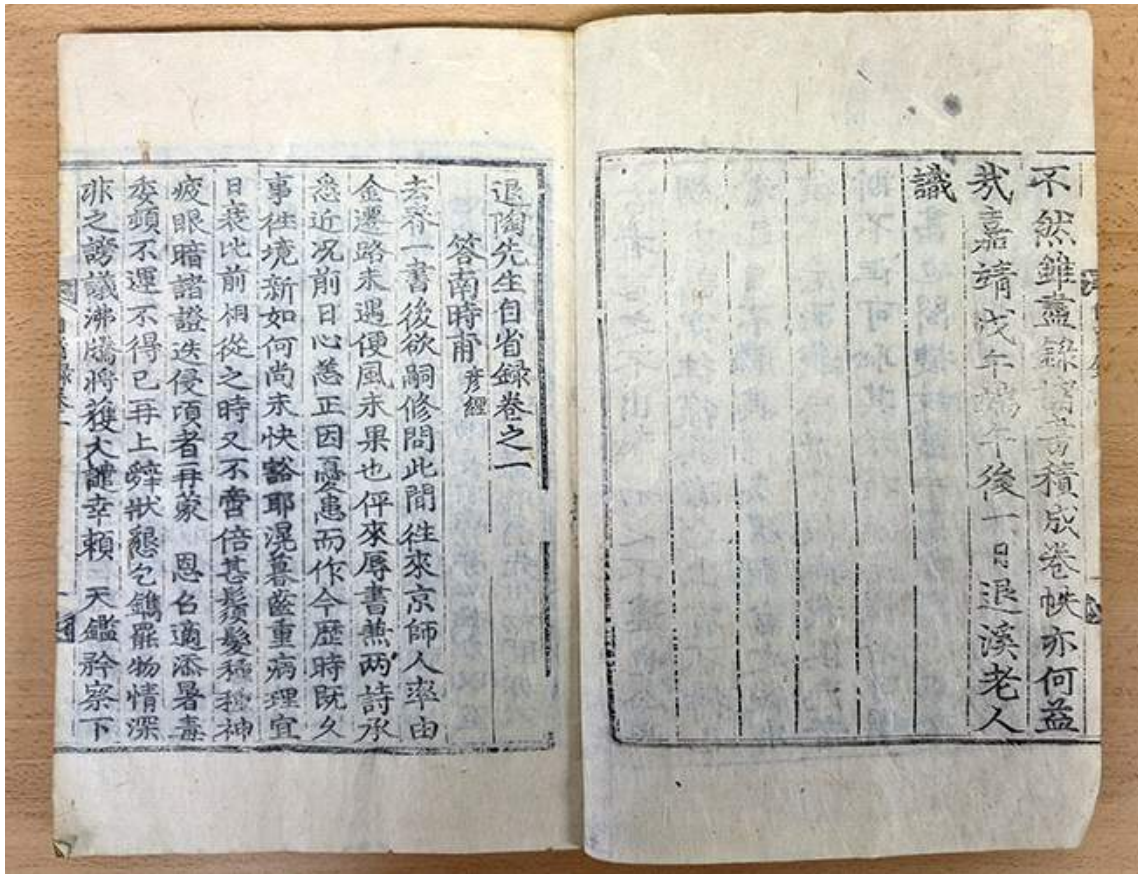


1585년 전라도 나주에서 판각된 퇴도선생자성록(退陶先生自省錄)



서명: 퇴도선생자성록(退陶先生自省錄)

판본: 목판본(木板本)

간행연대: 1585(後刷本)

1558년(명종 13)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지인들과 주고 받았던 편지 가운데 자신의 수양과 성찰에 도움이 되는 22통을 뽑아 엮은 글이다.

이 원고를 퇴계의 제자인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 간직하고 있다가 1585년(선조 18) 전라도 나주목사로 재임할 당시 목판에 새겨 간행을 하였다. 권수(卷首)에 이황의 수필(手筆) 자서(自序)가 판각되어 있고 발문(跋文)은 없으나 권말(卷末)에 만력13년 나주목개간 간기가 있다.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이 때 만들어진 책판은 김성일이 나주목사를 그만두면서 퇴계를 모신 도산서원(陶山書院)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600(선조 33) 도산서원에서 퇴계선생문집 초간본이 간행되는데 자성록이 별도로 간행되지는 않았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조선의 주자학이 크게 유행을 하면서 나주본을 저본으로 판각한 자성록이 간행된다. 이후 1660년과 1665년 교토에서 2차례 더 간행되는데 에도시대 걸출한 주자학자인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는 이 책을 통해 주자학의 진수를 알게 되었다고 극찬을 하였다. 일본에서 퇴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 책도 에도시대를 넘어 막부 말기 명치유신에 이르기까지 일본 주자학자들의 중요한 교재로 존중받았다.

조선에서는 1793년(정조 17) 도산서원에서 다시 간행되었고 그 뒤에 퇴계 이황의 문집과 그 밖에 관련 글을 모은 <퇴계전서(退溪全書)>에 포함되었다.

도서관 소장본은 권말 나주목 간기가 있는 초간본이지만 종이 재질과 인쇄상태로 볼 때 나중에 인쇄한 후쇄본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전 사림(士林)의 서적간행과 지방관의 출판활동을 고찰해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퇴도선생자성록 전시 안내

- 전시기간: 2022. 5. 1. ~ 5. 29.
- 전시장소: 중앙도서관 5층 고문헌 자료실
- 관람시간: 9:00~18:00(토요일, 점심시간 제외:12:00~13:00)